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for Nursing Students

김금이*, 이보영**

거제대학교 간호학과*, 한림성심대학교 간호학과**

Keum-EE Kim(nu19541@koje.ac.kr)*, Bo-Young Lee(bylee@hsc.ac.kr)**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후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A대 간호학과 학생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학생 전수인 118명 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ver. 21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6점,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3.42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의 하위영역은 교과만족이 가장 높고, 임상수행능력의 하위영역은 교육/협력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는 건강상태(F=3.896, p=.023), 대학생활 만족도(F=8.164, p<.001), 간호학 전공만족도(F=4.652, p=.011), 임상실습 여건만족도(F=11.889, p<.001), 임상실습량에 대한 만족도(F=13.504,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종교(t=6.682 p=.011), 대학생활 만족도(F=3.440, p=.03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r=.297, p=.001)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 중심어 : | 임상실습만족도 | 임상수행능력 | 간호대학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descriptive study was to investigat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for 118 of third and fourth year nursing stud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SPSS/PC+ver. 21 program which determined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Th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was 3.36 point out of 5 and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was 3.42 point out of 5. I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the curriculum was the highest and in clinical ability performance, education partnerships was the highest.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health status(F=3.896, p=.023),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F=8.164, p<.001), nursing department(F=4.652, p=.011), conditions in clinical practice(F=11.889, p<.001), and practice workload(F=13.504, p<.001).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religion(t=6.682 p=.011) and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F=3.440, p=.035).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was positive correlation(r=.297, p=.001).

■ keyword : |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 Nursing Student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간호학생들을 간호직의 요구에 필요한 적용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으로서 일반교육과는 달리 학생으로 하여금 뚜렷한 이념과 목적아래 최적의 복지 안녕을 위해 인간을 도우며 항상 실제와 이론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전문교육이다.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간호가 하나의 과학으로서 그리고 전문직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강의실에서 얻은 지식이 간호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될 때 간호의 기능 및 역할은 더 크게 발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습교육은 단편적인 기술의 체험이 아니라 환자의 측면에서 통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간호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간호사로서의 태도를 갖게 해준다. 간호학생이 교육을 받아 간호사라는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할 때 실습교육을 통한 학습경험은 졸업 후 간호사 업무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간호교육의 궁극적이며 공통적인 목적은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직업인인 간호사를 길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상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내용을 간호현장에서 대상자를 통해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살아 있는 지식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전문직업차원의 훈련으로서 중요한 교육으로 인정받고 있다[1][2].

간호교육에서 중요한 교육과정인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학생들은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배움을 경험하게 되고, 간호사의 기본 역할과 간호행위 기술을 학습하고, 변화하는 대상자의 요구에 대처 할 수 있는 수행능력을 획득하고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임상실습 교육을 통해 간호학생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이점들이 있음에도 간호학생은 임상실습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간호학생들은 익숙한 학교라는 환경에서 병원이라는 친숙하지 못한 환경으로 바뀌게 되고, 다양한 분야에 있는 의료인과 상호관계를 하면서 환자들의 간호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간호행위를 실제 수행해야 한다. 게다가 환자의 질적 간호 요구와 간호 사고 위험으로 인한 현장실습의 제한성으로 70%이상의 학생들은 활력징후와 관찰 등 비 침습적인 기본

간호위주의 임상실습을 하고 있어[4], 졸업 후 신규간호사의 실무능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5].

최근 간호교육기관 및 간호학생 수의 증가로 실습지도교수가 부족한 상태이고[6][7], 간호사의 업무는 과중된 상태이므로 학생들의 실습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8]. 또한 환자의 권리가 높아지면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중재를 거부하여[9]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은 주로 관찰에 의존하여 왔다[10]. 이러한 현상은 급변하고 있는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낮게 하여 이론과 현장실무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또한 학생은 간호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불확실하고 복잡한 실제 간호 상황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졸업 후 신규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의 부족은 학부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간호교육을 통한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론과 실습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은 실습만족도와 관련성이 높으며, 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업무수행능력은 더욱 더 증대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11], 오늘날 임상실무에서 만족도 사정 및 질적인 증진을 위해 환자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간호대학생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12]. 또한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은 오늘날 질적인 간호제공이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13].

임상실습 만족도와 관련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간호사 이미지가 높을수록[14], 임상실습 수행도가 높을수록[15][16], 프리셉터 지도를 받은 학생이[17], 힘복돋우기(empowerment)가 높을수록[18], 우울이 낮을수록[19],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20],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성이 높을수록[21],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15][16][22]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에서 임상실습 만족도가 여러 변수 중 임상수행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이는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 때 실습의욕을 자극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15].

임상수행능력 관련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규은 등[23]의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의 하위영역 중 간호기술, 전문직 발전, 간호교육/협력, 간호과정, 대인관계/의사소통의 순으로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다. 김혜숙[24]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의 영역별 순위는 전문직 발전, 간호기술, 대인관계/의사소통기술, 교육/협력관계, 간호과정 순으로 평가되었고, 이중 간호과정영역이 가장 낮게 평가한 것은 간호대학생들이 이론적으로 배운 간호과정을 실제 환자간호 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었다. 조학순[25]의 연구에서는 전문직 발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미숙[11]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교수효율성과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연구에서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수효율성과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고, 교수효율성과 임상수행능력간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현옥[16]도 임상수행능력은 이론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통하여 획득되는 기술로서 의사결정 및 비판적 사고가 그 과정에 통합되어야 하며, 간호사의 필수적 요소로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은 간호교육에서 중요하다고 하였다.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간호대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아졌고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

최근의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의 부실은 임상수행능력 부족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한걸음 나아가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저하와 함께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임상실습이 최적의 학습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과 현재의 만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학교마다 지역적 실습환경과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A 학교의 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 관련 다양한 변인간의 관계

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A 대학을 대상으로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이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보다 질 높은 임상실습 환경조성을 위해 효율적인 간호교육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관계를 파악하여 임상실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실습관련 특성별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비교한다.
- 셋째,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3. 용어정의

3.1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교과목, 간호대학생의 실습 내용, 간호대학생의 실습지도, 간호대학생의 실습환경, 간호대학생의 실습시간, 간호대학생의 실습평가 등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정서반응을 의미한다[18]. 본 연구에서는 이순희 등[14]이 사용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3.2 임상수행능력

수행능력(competency)은 ‘기능적으로 적절하게 충분한 지식, 판단, 기술 또는 힘을 가진 상태’를 말한다. 임상수행능력이란 학습되어진 지식, 기술, 태도, 판단 등을 임상교육과정을 통하여 임상상황에서 적절하게 보여주고, 유능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조작적 정의는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보여주고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26]. 본 연구에서는 Schwrian(1978)의 Six-Dimension Scale을 기반으로 이원희 등[27]이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최미숙[11]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간호대학생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로 자가 평가한 점수를 의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후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을 파악하고 이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A대학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간호학생 13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하였다. G*Power 3.1.9.2를 사용하여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alpha=.05$,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effect size) 0.5, 검정력(power) 0.95로 산출한 결과는 최소 표본수는 115명이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127명이 필요한 표본수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허락한 학생에게 서면동의를 구한 후 전수인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하였으며, 개인사정으로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3명을 제외한 총 118명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수행능력으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질문지 문항은 총 87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11문항, 임상실습 만족도 31문항(실습교과 문항 3개, 실습내용 문항 6개, 실습지도 문항 9개, 실습환경 문항 7개, 실습시간 문항 3개, 실습평가 문항 3개)과 임상수행능력 45문항(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1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는 조결자와 강현숙[28]이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와 이성은[29]이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를 이순희 등[14]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실습교과 문항 3개, 실습내용 문항 6개, 실습지도 문항 9개, 실습환경 문항 7개, 실습시간 문항 3개, 실습평가 문항 3개 등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조금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조금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순희 등[1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3.2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 도구는 이원희 등[27]이 개발하고 최미숙[11]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5개 영역 즉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척도(매우 못한다: 1점, 약간 못한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잘한다: 4점, 매우 잘한다: 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미숙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13년 10월 10일~ 11일까지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응답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구두로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후 서면 동의를 작성한 간호 대학생에게 자가보고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ver. 21을 이용하여 분석하며 유의수준은 $p<.05$ 로 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실습관련 특성별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실습 만족도는 t-test와 ANOVA로,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부 학교에서만 편의 추출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타 대학과의 비교분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하여 일반화 하는데는 제한이 있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118명 중 학년은 3학년이 78명(66.1%), 4학년이 40명(33.9%)이었고, 종교는 무교가 73명(61.8%)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가 19명(16.1%), 불교가 16명(13.6%)순이었다. 연령은 20~24세가 106명(89.8%)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은 남학생이 13명(11.0%), 여학생이 105명(89.0%)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거주형태는 '자가'가 58명(49.2%)으로 '기숙사'가 57명(48.3%)보다 많았고, 건강상태는 61명(51.7%)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보통'이 69명(58.5%)으로 가장 많았고, 학업성적은 '중'이 87명(73.7%)로 가장 많았다.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 49명(41.5%)이었다. 실습 여건만족도는 '보통'이 50명(42.4%)로 가장 많았고, 임상실습량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56명(47.5%)이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실습관련 특성

(N=118)

특성	구분	n	%
학년	3학년	78	66.1
	4학년	40	33.9
종교	기독교	19	16.1
	천주교	10	8.5
	불교	16	13.6
	무교	73	61.8
연령	20~24세	106	89.8
	25~29세	10	8.5
	30세 이상	2	1.7
성별	남	13	11.0
	여	105	89.0
거주형태	자가	58	49.2
	기숙사	57	48.3
	기타	3	2.5
건강상태	매우건강함	24	20.3
	건강함	61	51.7
	보통	28	23.7
	나쁨	5	4.2
대학생활 만족도	만족	42	35.6
	보통	69	58.5
	불만족	7	5.9
학업성적	상	17	14.4
	중	87	73.7
	하	14	11.9
간호학 전공 만족도	매우만족	10	8.5
	만족	49	41.5
	보통	48	40.7
	불만족	11	9.3
임상실습 여건 만족도	매우만족	9	7.6
	만족	44	37.3
	보통	50	42.4
	불만족	15	12.7
실습량 만족도	만족	48	40.7
	보통	56	47.5
	불만족	14	11.9

2.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평점 3.36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의 평균평점을 살펴보면 실습교과에 대한 만족도 3.64점, 실습환경에 대한 만족도 3.46점,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 3.40점,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도 3.26점, 실습평가에 대한 만족도 3.20점,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도 3.20점이었다.

임상수행능력은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평점 3.42점이었으며, 하위영역의 평균평점을 살펴보면 교육/협력관계 3.52점, 대인관계/의사소통 3.48점, 전문직 발전 3.47점, 간호과정 3.38점, 간호기술 3.27점 이었다[표 2].

표 2. 대상자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 만족도 (N=118)

변수	하위영역	M±SD
임상실습 만족도	교과만족	3.64±0.65
	환경만족	3.46±0.55
	내용만족	3.40±0.44
	시간만족	3.26±0.92
	평가만족	3.20±0.77
	지도만족	3.20±0.50
	총점	3.36±0.43
임상수행 능력	교육/협력관계	3.52±0.52
	대인관계/의사소통	3.48±0.47
	전문직발전	3.47±0.48
	간호과정	3.38±0.42
	간호기술	3.27±0.46
	총점	3.42±0.36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건강상태(F=3.896, p=.023), 대학생활 만족도(F=8.164, p<.001), 간호학 전공만족도(F=4.652, p=.011), 임상실습 여건만족도(F=11.889, p<.001), 임상실습량에 대한 만족도(F=13.504,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정한 결과 건강상태에서는 ‘건강하다’(3.41±0.37)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이다’(3.18±0.46), ‘건강이 나쁘다’(3.29±0.35)보다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았고,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만족한다’(3.53±0.33), ‘보통이다’(3.25±0.40), ‘불만족한다’(3.14±0.45)라고 응답한 대상자별로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활에 ‘만족한다’는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서 ‘만족한다’(3.53±0.33)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이다’(3.25±0.40), ‘불만족한다’(3.02±0.44)보다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았으며, 임상실습 여건만족도에서 ‘만족한다’(3.51±0.41), ‘보통이다’(3.27±0.30), ‘불만족한다’(3.14±0.45)라고 응답한 대상자별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임상실습 여건이 ‘만족한다’는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임상실습량 만족도는 ‘만족한다’(3.53±0.37), ‘보통이다’(3.28±0.36), ‘불만족한다’(3.00±0.37)라고 응답한 대상자별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임상실습 여건이 ‘만족한다’는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가 가장 높았다[표 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N=118)

특성	구분	M±SD	t or F p	비고*
학년	3학년	3.31±0.38	2.008	
	4학년	3.42±0.43	.159	
종교	있다	3.43±0.38	3.622	
	없다	3.29±0.41	.600	
연령	20~24세	3.34±0.41	.307	
	25~29세	3.44±0.43	.736	
	30세 이상	3.29±0.20		
성별	남	3.40±0.38	.320	
	여	3.34±0.41	.573	
거주형태	자가	3.35±0.35	.032	
	기타모두	3.34±0.45	.858	
건강상태	건강하다 a	3.41±0.37	3.896	a)b,c
	보통 b	3.18±0.46	.023	
	건강나쁨 c	3.29±0.35		
대학생활 만족도	만족 a	3.53±0.33	8.164	a)b) c
	보통 b	3.25±0.40	<.001	
	불만족 c	3.14±0.45		
학업성적	상	3.38±0.37	1.422	
	중	3.37±0.41	.246	
	하	3.18±0.35		
간호학 전공 만족도	만족 a	3.45±0.40	4.652	a)b,c
	보통 b	3.24±0.38	.011	
	불만족 c	3.20±0.37		
임상실습 여건 만족도	만족 a	3.51±0.41	11.889	a)b) c
	보통 b	3.27±0.30	<.001	
	불만족 c	3.02±0.44		
실습량 만족도	만족 a	3.53±0.37	13.504	a)b) c
	보통 b	3.28±0.36	<.001	
	불만족 c	3.00±0.37		

*: Scheffe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종교(t=6.682 p=.011), 대학생활 만족도(F=3.440, p=.03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종교는 ‘있다’(3.51±0.39)가 ‘없다’(3.34±0.33)보다 임상수행능력이 더 높았으며, 대학생활 만족도(3.52±0.37)는 ‘만족’한다는 집단이 ‘보통’, ‘불만족’한다는 집단보다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다[표 4].

5.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임상수행능력($r=.297,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N=118)

특성	구분	M±SD	t or F p	비고*
학년	3학년	3.37±0.34	2.514 .116	
	4학년	3.48±0.38		
종교	있다 a	3.51±0.39	6.682 .011	a)b
	없다 b	3.34±0.33		
연령	20~24세	3.40±0.37	.881 .417	
	25~29세	3.52±0.27		
	30세 이상	3.19±0.14		
성별	남	3.59±0.28	3.666 .058	
	여	3.39±0.36		
거주형태	자가	3.43±0.40	.227 .635	
	기타모두	3.40±0.32		
건강상태	건강하다	3.45±0.38	2.462 .090	
	보통	3.33±0.27		
	건강나쁨	3.16±0.27		
대학생활 만족도	만족 a	3.52±0.37	3.440 .035	a)b,c
	보통 b	3.35±0.35		
	불만족 c	3.36±0.31		
학업성적	상	3.56±0.37	1.680 .191	
	중	3.38±0.36		
	하	3.41±0.32		
간호학 진공 만족도	만족	3.43±0.31	.210 .811	
	보통	3.41±0.41		
	불만족	3.35±0.42		
임상실습 여건 만족도	만족	3.38±0.35	.343 .710	
	보통	3.44±0.37		
	불만족	3.43±0.36		
실습량 만족도	만족	3.47±0.37	1.137 .324	
	보통	3.39±0.35		
	불만족	3.32±0.34		

*: Scheffe

표 5.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 (N=118)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1	
임상수행능력	.297 ($p=.001$)	1

IV. 논의

간호교육의 일차적 목표인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한 질적 간호의 제공은 전문직 간호사의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실습이 최적의 학

습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를 파악해보고, 보다 나은 임상실습 환경조성을 위해 효율적인 간호교육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36점으로 박미숙 등[15]의 연구에서 3.23점, 김남희와 김경원[22]의 연구에서 3.10점, 강현옥[16]의 연구보고에서 나타난 2.90점, 이순희 등[14]의 연구에서 2.73점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비교적 임상실습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는 교과만족 3.64점, 환경만족 3.46점, 내용만족 3.40점, 시간만족 3.26점, 평가만족 3.20점, 지도만족 3.20점으로 나타나 이순희 등[14], 박미숙 등[15], 김남희와 김경원[22]의 연구결과에서 실습 교과만족이 가장 높은 것과 일치하였으나 강현옥[16]의 연구에서는 내용만족이 3.2점, 교과만족이 2.9점으로 나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김남희와 김경원[22]의 연구결과에서는 실습지도 만족이 가장 낮게 측정되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고, 그 밖에 강현옥[16]의 연구에서는 실습평가 만족이 가장 낮게 측정 되어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 개인별로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학습된 지식을 현장에서 직접 적용하여 반복·경험함으로써 간호 수행시의 두려움과 부담감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고, 해보지 못한 부분을 지도교수가 직접 해보게 하면서 체계적으로 습득이 가능하여 교과만족도가 높았다고 여겨진다. 실습 환경만족도가 다른 논문의 결과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숙소와 교통, 실습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실습 내용만족으로는 단순 업무이지만 왜 하는지를 알고 배운다라고 하였다. 반면에 실습평가영역 중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임상실습 평가방법이 만족스럽다'라는 질문에 대해 3.04점의 낮은 점수로 평가방법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습시간영역 중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1일 실습시간이 적절하다'라는 질문에 대해 3.05점의 낮은 점수로 개인별 차이는 있겠으나 1일 실습시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실습지도영역 중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실습 시 부과되는 과제의 양은 적당하다'라는 질문에 대해 2.76점의 낮은 점

수로 실습 시 부과되는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와 지도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학교에서 임상실습지에 학생을 전적으로 맡겨서 실습을 하고 있으므로 실습지도가 부족하고, 지도교수의 객관화된 평가기준 없이 주관적 견해로 실습점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임상현장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간호사들이 귀찮아 한다는 특성으로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임상실습 시 제출해야 하는 과제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객관화된 평가 자료와 지도교수의 실습현장에서 1:1의 프리셉터 지도가 필요하며 과제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42점으로 이규은 등[23]의 연구에서 나타난 3.93점, 김혜숙[24]의 3.92점보다는 낮게 나타났지만, 강현욱[16]의 3.30점, 조학순[25]의 3.37점, 최은희[30]의 3.33점보다는 높게 나타나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였다. 이는 10년 전 과거의 임상실습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수행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최근의 임상실습 현장에서는 대상자가 간호학생의 직접적 처치를 꺼려하고, 법적인 것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간호제공이 한계가 있고 엄격해져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직접 수행보다 관찰 위주의 실습환경에 기인한 탓에 과거의 이규은 등[23], 김혜숙[24]의 연구결과보다는 최근의 연구 강현욱[16], 조학순[25], 최은희[30]결과에서 임상수행능력 점수가 낮아진 경향과 일치한다고 본다. 하위영역별로는 교육/협력관계 3.52점, 대인관계/의사소통 3.48점, 전문직 발전 3.47점, 간호과정 3.38점, 간호기술 3.27점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협력관계 영역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인 결과는 성미혜[31]의 4년제 대상자의 연구결과에서 교육협력관계 4.30점이 가장 높은 것과 일치하였고, 간호기술 영역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인 결과는 최은희[30]의 연구결과 3.05점보다 비교적 높은 결과를 보였다.

임상수행능력 중 하위영역인 교육/협력관계 영역이 높은 이유로는 대상자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므로 심적 부담이 덜하며 정서적으로 rapport형성

이 용이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과정 영역이 낮은 이유로는 임상실습이 관찰 위주와 활력징후와 같은 단순영역에 국한되어 있어 임상실무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또한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간호과정을 대상자에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case study로 과제를 제출하기 위한 과정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간호기술 또한 대학에서 모형으로 충분한 실습은 하지만 실습현장에서의 대상이 인간이다 보니 어려운 제약요인들과 눈치를 봄으로써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보다 까다로워진 실습환경, 즉 환자인권을 우선 시 함에 따라 실제로 간호학생이 간호기술을 수행할 기회가 적어짐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김혜숙[32], 최미숙[11], 조학순[25], 강현욱[16], 성미혜[31]의 연구에서 가장 낮은 영역을 보였던 간호과정 영역이 본 연구에서도 간호기술 다음으로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생들이 이론적으로 배운 간호과정을 실제 환자 간호 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 임상에서 간호과정을 완전하게 적용하지 않으므로 간호사의 간호과정을 배울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31]. 또한 간호과정은 근거기반 간호를 위한 체계적인 방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간호교육과 간호현장에서 활용하여 왔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은 간호진단에 대한 지식이나 활용에 대한 자신감 부족, 실제적이지 못한 교육, 시간과 인력 부족, 부적절한 지식과 기억력의 한계, 실무상황에 부적절한 도구 사용 등으로 실무에서 간호과정 적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습 교육방법 개발과 시뮬레이션 교육, 이론적 지식과 적용능력의 향상을 위한 질적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는 건강상태,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학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여건만족도, 실습량에 대한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해 전공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구는 이순희 등[14], 김남희와 김경원[22], 박현주와 장인순[19], 강현욱[16], 구현영과 임형석[33]의 연구들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임상실습 만

족도와 간호학 전공만족도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고 있는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구현영과 임형석[33]은 임상실습 만족도와 전공 만족도는 중등도의 순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으며 설명력이 26.8%나 되는 높은 변인이라고 하였다. 이는 전공 만족도가 높은 경우 전공과 관련된 임상실습분야에 더욱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스스로 만족하게 되고, 자신의 진로, 미래 간호사로서의 활동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간호사 업무를 관찰하고 수행하는 임상실습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임상실습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만족스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본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종교,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종교가 있는 사람과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활 만족도[16], 간호학 전공만족도[11][16], 실습량에 대한 만족도[16]등의 연구에서도 만족한다는 집단이 보통 또는 불만족 한다는 집단 보다 임상수행능력 정도가 높았다. 또한 강현옥[16]의 연구결과에서 보고된 것과 비교하여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학 전공만족도, 실습량에 대한 만족도와 일부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들[15-17][31][34][35]과 본 연구는 일치하였으며, 정점숙[35]의 연구에서 임상실습만족도에 임상수행능력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효과가 있고, 유의한 상관계수는 $r=.537$ 로 나타났다. 방경숙 등[36]의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과 실습만족도의 유의한 상관계수는 $r=.476$ 로 나타난 결과에 비해 본 연구의 상관계수 $r=.297$ 은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들[35][36]은 본 연구 대상자들의 실습지도환경과 다른 임상프리셉터십을 적용한 실습현장의 대상자들로서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 각각에 긍정적 효과를 주어 두 변인간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본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보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을 각각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전략들이 요구된다고 본

다. 실습만족도와 관련 있는 전공 만족도 및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간호학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마련하고, 참여를 격려하며, 흥미를 일으키는 학습법을 개발하는 등 간호학 전공에 대한 이해와 만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제 현장 실무경험자와 학생과의 임상프리셉터십을 적극 활용하고 임상현장의 상황 및 여건을 고려하여 임상실습교육에 있어 실습기관과 대학은 실질적 산학협약의 관계에서 효과적인 실습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3, 4학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후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10월 10일 ~11일까지이며, A대학교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간호대학생 118명이었다. 연구도구는 임상실습 만족도 도구, 임상수행능력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ver 21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6점,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3.42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상실습 만족도의 하위영역은 교과만족이 가장 높고, 평가, 지도 만족이 가장 낮았으며, 임상수행능력의 하위영역은 교육/협력관계 가장 높고, 간호기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는 건강상태에서 '건강하다'가 높았으며,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학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여건만족도 및 임상실습량은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종교가 '있다'에서 높았으며, 대학생활 만족도는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

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임상실습 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의 개발과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교내실습과 임상실습의 연계성을 고려한 실습지도 방안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간호대학생을 포함하여 대상자수를 확대한 상태에서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수행능력과의 관련성에 대해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간호교육은 이론과 실습의 균형을 유지하여 국민들에게 질적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이 간호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간호교육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는데 미력하나마 기여하였다.

참 고 문 헌

- [1] 성명숙, 정금희, 장희정, “임상간호교육평가도구 개발”, 한국간호교육학회, 제4권, 제2호, pp.172-186, 1998.
- [2] S. V. Dunn and B. Hansford,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perceptions of their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25, pp.1299-1306, 1997.
- [3] 박경숙, 황윤영, 최은희, “간호학생의 중환자실 임상실습 체험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제15권, 제4호, pp.373-382, 2003.
- [4] 조미혜, 권인수,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중 간호활동 경험정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3권, 제2호, pp.143-154, 2007.
- [5] 유문숙, 유일영, 박연옥, 손연정, “기본간호학 실습교육 방법에 따른 학생들의 간호 수행능력의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제32권, 제3호, pp.410-419, 2002.
- [6] 유필숙, 김은실, 김혜정, 이성희, 형희경, 엄애용, 김희선,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교수효율성 인지정도”, 간호행정학회지, 제14권, 제3호, pp.311-320, 2008.
- [7] D. Callaghan, E. W. Watts, L. D. McCullough, T. J. Moreau, A. M. Little, M. L. Gamoroth, and L. K. Durnford, “The experience of two practice education model: Collaborative learning unit and preceptorship,”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9, No.4, pp.244-252, 2009.
- [8] 박지원, 김기숙, 방경숙, “일 병원 프리셉터의 학생 프리셉터쉽에 대한인식 및 임상수행능력 준비도에 대한 간호학생과의 지각 비교”,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6권, 제2호, pp.213-221, 2010.
- [9] P. Bradley and K. Poatlethwaite, “Simulation in clinical learning,” *Medical Education*, Vol.37, No.1, pp.1-5, 2003.
- [10] J. Benson-Soros, “Promoting student participation and learning in the observational clinical setting,” *Teaching and learning in Nursing*, Vol.1, No.2, pp.43-46, 2006.
- [11] 최미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교수 효율성과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2005.
- [12] D. L. Lindset, S. J. Henly, and E. A. Tyree, “Outcomes in an academic nursing center ; client satisfaction with student service,” *J Nurs Care Qual*, Vol.11, No.5, pp.30-38, 1997.
- [13] 김은하, 오윤희, “3년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 제6권, 제2호, pp.156-198, 2000.
- [14] 이순희, 김숙영, 김정아, “간호학생의 간호이미지와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행정학회지, 제10권, 제2호, pp.219-231, 2004.

- [15] 박미숙, 이미현, 구정아,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 만족도”, *군진간호연구*, 제29권, 제2호, pp.111-123, 2011.
- [16] 강현옥,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 만족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17] 이점덕, 이정숙, “프리셉터쉽 적용이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간호행정학회지*, 제13권, 제3호, pp.434-443, 2006.
- [18] 한수정,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힘 북돋우기(empowerment)와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제17권, 제1호, pp.44-53, 2000.
- [19] 박현주, 장인순, “일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과 임상실습 만족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6권, 제1호, pp.14-23, 2010.
- [20] 신은주, “일 대학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 실습 만족도 및 기본간호수기술과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제15권, 제3호, pp.380-386, 2008.
- [21] 김영희, “일 대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및 임상 실습 만족도와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제16권, 제3호, pp.307-315, 2009.
- [22] 김남희, 김경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자기 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 만족도”, *보건의료 산업학회지*, 제5권, 제4호, pp.41-51, 2011.
- [23] 이규은, 하나선, 길숙영, “간호대학생의 자기표출과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제30권, 제3호, pp.571-582, 2000.
- [24] 김혜숙,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태도와 임상수행능력에 관한연구”, *전남대 간호과학논집*, 제6권, 제1호, pp.81-93, 2001.
- [25] 조학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 주도적 학습 및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정보통신학회지*, 제32권, 제2호, pp.57-72, 2007.
- [26] Barret and Myrick,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27*, pp.364-371, 1998.
- [27] 이원희, 김조자, 유지수, 허혜경, 김경숙, 임성민,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측정도구개발 연구”, *간호학논집*, 제13권, pp.17-27, 1990.
- [28] 조결자, 강현숙, “일부 간호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제14권, 제2호, pp.3-74, 1984.
- [29] 이성은, “일 대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실습경험 분석 및 개선방향제시-모성간호학 임상실습 중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7권, 제2호, pp.333-348, 2001.
- [30] 최은희,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5권, 제1호, pp.15-21, 2009.
- [31] 성미혜, “간호대학생의 학제간 성취동기,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실습 만족의 관련성 비교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제17권, 제1호, pp.90-98, 2010.
- [32] 김혜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16권, 제1호, pp.64-76, 2002.
- [33] 구현영, 임형석, “학제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3권, 제1호, pp.311-321, 2013.
- [34] 양진주, “일개대학 간호 학생의 중환자 간호 수행 능력과 간호지식 및 실습만족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1권, 제12호, pp.998-1006, 2013.
- [35] 정점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 주도성과 임상실습만족도:임상수행능력의 매개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8권, 제1호, pp.53-61, 2012.
- [36] 방경숙, 채선미, 유주연, 송민경, 이지혜, “아동간호 임상프리셉터쉽 경험유무에 따른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수행능력 자신감, 실습 만족도 비교”,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3호, pp.396-404, 2013.

저 자 소 개

김 금 이(Keum-EE Kim)

정회원



- 1986년 2월 : 간호사관학교 간호학과(이학사)
- 1991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 석사)
- 2006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현재 : 거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건강증진, 지역사회간호, 간호연구

이 보 영(Bo-Young Lee)

정회원



- 1987년 2월 : 간호사관학교 간호학과(이학사)
- 1995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 석사)
- 2010년 2월 : 강원대학교 예방의학과(의학 박사)

▪ 현재 : 한림성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보건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교육